

테스트

선물세트 포장공간



선물세트 포장공간검사 결과 62.5%가 포장공간비율 기준 위반

선물세트 중 12.5%, 포장공간이 50%이상 차지
포장공간비율 최대 64.5% 차지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된다.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 배송 등 제품의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환경 문제가 이제는 중요한 소비자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 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추석 명절용 종합선물세트 중 과대 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 40개를 수거하여 포장공간검사를 진행하였다.

포장공간검사 대상 제품

조사대상 종류는 1차 식품인 더덕 선물세트(2점)와 참기름, 전통장류, 햄류, 식용유, 소스류 등의 가공식품 선물세트(21점), 와인이나 전통주 등 주류선물세트(3점), 홍삼, 인삼드링크 등의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5점), 화장품류 선물세트(4점), 삼푸, 비누 등의 생활용품 선물세트(5점) 등 총 40개로 모두 종합제품이었다.

종합제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종합제품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25% 이하 (20%이하)	2차 이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 846호)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하며, 종합제품의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25%이하여야 하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종합제품 중 포장재질 중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합성수지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의 반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종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을 2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크기에 10mm 가산하던 것을 5mm로 축소하는 등 포장공간기준 강화

포장공간비율 20% 이하 적용 종합제품 예



이번 조사 대상 제품 40개 중 14개 제품은 합성섬유재질의 반침대나 재활용이 어려운 완충재를 사용하고 있어 포장공간비율 20%이하 기준을 적용하였다. 14개 제품으로는 전통장류 선물세트(5점), 주류 선물세트(3점), 화장품 선물세트(3점),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3점)이었다.

포장공간비율검사 결과

62.5%가 포장공간비율 기준 위반

포장공간비율검사 대상 40개 종합제품 중 25개(62.5%)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장류, 주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위반하였다. 대체적으로 대기업 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햄·식용유 선물세트나 비누·삼푸 등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모두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전통장류 등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향후 중소기업에서도 포장공간비율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도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품군별로 포장공간시험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전통장류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은 평균 41.2%, 건강기능식품 31.7%, 주류 선물세트 28.9%, 화장품 선물세트 25.3%, 더덕 선물세트 25.1%로 나타났고, 햄·식용유 선물세트 21.5%, 생활용품 선물세트 15.2%로 나타났다. 햄·식용유 선물세트와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모두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였다.

제품군별 포장공간비율(%)

제품군	검사시료 개수	포장공간비율 시험결과 평균(%)
더덕 선물세트	2	25.1
전통장류 선물세트	17	41.2
햄, 식용유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	4	21.5
건강기능식품	5	31.7
주류	3	28.9
화장품	4	25.3
삼푸,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선물세트	5	15.2

조사대상 제품 중 12.5%는 선물세트의 50% 이상이 포장공간

제품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최대 64.5% 차지

포장공간이 선물세트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검사대상 40개 제품 중 5개(12.5%)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전통장류 제품으로 절반이상이 포장재로 과대포장이 특히 심한 제품이었다. 포장 공간이 가장 높은 제품은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내고향 참들 선물세트1호'로 포장공간이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트에서 판매한 '과주 DMZ 100% 국산재료 장단콩 장류선물세트'의 포장공간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세트 중 포장공간이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제품 사례



포장공간비율 5%이하인 선물세트도 있어

제조업체 불필요한 선물세트 포장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이번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 검사 제품 중에는 포장공간이 5%이하인 제품도 있었다.

포장공간비율을 5%이하로 개선한 선물세트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용품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은 21%~25% 사이였는데, 개선된 포장의 선물세트는 플라스틱 고정제를 제거하고 제품을 종이박스 안에 넣어 포장공간 비율을 5% 이하로 개선하였다.

최근에는 제조업체 스스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거하는 등 포장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제품에만 시도되고 있어, 향후 포장개선을 통해 과대포장을 줄이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양산하지 않도록 기업과 소비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

포장공간 개선 사례

